

서울특별시 소재 일반고등학교 예술교과 교육과정 편제 분석

배 수 영*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일반고등학교 예술교과 교육과정 편제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특별시 소재 188개의 일반고등학교 중 2018학년도 입학생의 3학년 교육과정 편제를 공시한 157개교이다. 공시된 교육과정 편제를 수합하여 학년별 예술교과 편제 현황, 학교별 예술교과 이수단위, 예술교과 과목 개설 현황, 예술과목 과목 개설 수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예술교과가 1, 2, 3학년 모든 학년에 편제되어 있는 경우는 78개교(49.6%)이고, 79개교(51.4%)에는 한 학년 혹은 두 학년에만 편제되어 있다. 전체 157개교 중 49개교(31.2%)는 학교지정으로만 예술교과를 편제하였고, 학생선택이 가능한 108개 중에서도 이수단위를 지정한 학교가 41개교(26.1%)로, 총 90개교(57.3%)에서 학생선택의 폭이 제한적이었다.

※ 주제어: 교육과정, 예술교과 교육과정, 예술교육

차 례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1. 교육과정 내용 선정
 - 2. 교육과정 내용 조직
 - 3. 2015 개정 교육과정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
 - 2. 자료분석
- IV. 연구결과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sb2388@dau.ac.kr)

I. 서론

교육과정이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조직한 계획”이다(두산백과, 2018). 교육과정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만났을 때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란 기본질문에 대한 결정으로, 이 질문은 교육목표인 ‘왜’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가와 교수·학습 방법인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 나아가 교육평가인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가와 차례로 관련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8).

하지만, 제한된 기간과 시간의 범위에서 인류의 모든 문화유산이나 현실생활 혹은 미래사회에 당면한 요구 전체를 학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무엇을 교육과정에 포함(inclusion)하고 무엇을 배제(exclusion)할지 결정해야 한다. 교육과정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것은 교육방법과 평가 및 교육 경험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포함과 배제의 수준과 범위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교과와 내용과 특성에 따라,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진다(김대현, 2017).

교육은 “학습자가 사회·문화적으로 가치로운 지식을 획득함과 동시에 개인적인 발달이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고, 학교교육과정은 이러한 경험을 학습자들에게 제공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구조화한 것이다(소경희, 2015, p. 198). 따라서 학교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은 교과 지식을 선정하는 것과 더불어 개별 학습자를 발달시키는 것에 중요한 초점을 두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많이 아는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 교육’으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p. 10)을 제시하고, 기초 소양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p. 10)을 개정방향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교육과정평가원, 2015). 이에 따라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르는 것을 학습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p. 6). 이를 위해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공통과목을 이수한 후, 자신의 진로, 적성, 관심에 따라 선택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 편성 5단위를 기준으로 일반선택 과목은 2단위, 진로선택 과목은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게 하

였다. 나아가 일반고등학교에서도 필요에 따라 보통교과 외 전문교과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부에서 지정한 일반고등학교 예술교과 필수이수단위는 10단위이며, 예술교과도 각 학교마다 추가이수단위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되는 예술교과의 과목, 운영단위와 학년별 편제, 그리고 총 이수단위는 각 학교마다 다양하고 그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2015 교육과정이 개시되고 2018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술교과 교육과정의 편제 현황을 조사하여 예술교과 교육과정의 편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소재 일반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15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8년도 입학생의 3개년 교육과정 편제를 분석하여 예술교과 교육과정 편제의 현황과 개선점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교육과정 내용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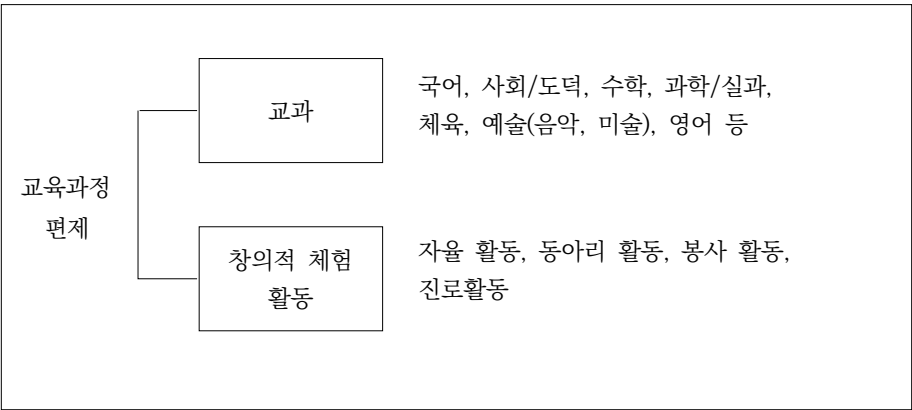
1) 교육과정 내용의 편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3조에는 교과에 관한 규정이 있고, 교과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교육부에서 고시한 국가 교육과정에 상세하게 규정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편제를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의 2가지를 축으로 하여 구분하고 있다.

교과는 교수·학습을 위한 활동 단위로 학문적 분류 체계나 사회·문화적 활동이 요구에 따라 성립된다. 교육과정을 보는 관점에 따라 교과의 분류 체계는 달라지기도 한다.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와 ‘과목’이 모두 제시되어 있으며, 초·중학교는 교과(군)의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에 교과와 과목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고등학교 예술교과는 음악교과와 미술교과가 통합되어 한 교과로 분류되어있고, 공통과목은 없으며 일반선택과목으로 음악, 미술, 연극이, 진로선택과목으로 음악연주, 음악감상과비평, 미술창작, 미술감상과비평이 구체적인 과목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교과외 지식 편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것으로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 활동의 4개 영역이 있다.



[그림 1] 국가 교육과정 편제(교육부, 2015)

2) 교육과정 내용의 선정 원리

교육과정 내용의 선정 원리는 국가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서도 적용되는 원리이다. 예컨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거나 창의적 체험 활동을 구성할 때도 같은 원리가 활용된다. 교육과정 내용 선정의 원리는 교육과정의 정의나 접근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을 학문을 중심으로 할 경우에는 기본 개념과 원리, 법칙 등이 중요하고, 사회 기능을 중심으로 할 경우에는 생명이나 자연자원의 보존 등과 같이 개인과 집단 활동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 중요하다(박창언, 2017).

교육과정 내용의 선정 원리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있다. 타일러(Tyler, 2013)는 연습 기회의 원리, 성취 가능성, 만족감, 다원적 경험의 원리, 복합성과의 원리를 제시하였고, 브래디(Brady, 1995)는 중요성, 타당성, 학습 가능성, 흥미 및 관심, 사회적 실재와의 일치성,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토대로 학교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게 되고, 창의적 체험 활동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예시적 주제를 선택하거나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과정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

2. 교육과정 내용 조직

교육과정 내용 조직은 교육과정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선정된 내용을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배열하는 것이다. 동일한 내용일지라도 교육과정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학습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박창언, 2017). 예를 들어, 연대기적으로 조직된 예술 장르의 발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학습자가 예술에 대한 특정한 사건이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반면에 예술에 대해 극음악, 기악음악, 대중음악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조직된 경우, 학습자는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학습하는 데 용이하다.

1) 교육과정 내용 조직의 수준

교육과정 내용 조직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공식적인 문서에 존재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교과가 정해져 있고, 각론에는 교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다(김지혜, 2019, 재인용). 단위학 교에서는 이들을 토대로 주제를 정하거나 차시별 수업 계획을 세워 내용을 조직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내용 조직은 여러 수준으로 구분하여 조직되며 일반적으로 <표 1>과 같은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한다.

<표 1> 교육과정 내용 조직의 세 수준(박창언, 2017)

단계	구조적 요소	구조적 요소의 종류
상위 단계	교과	교과, 광역 교과, 중핵 교육과정 등
중간 단계	과목	긴 단계의 설계, 학기나 학년 단위 설계
하위 단계	단원, 주제, 차시	하루, 며칠 혹은 몇 주 단위 설계

2) 교육과정 내용의 조직 원리

교육과정 내용의 조직 원리는 범위, 계열성, 통합성, 계속성, 연계성, 균형성 등이 있으며(박창언, 2017; 소경희, 2017), 이를 토대로 코스나 단원을 개발하게 된다. 이는 국가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 모두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범위와 통합성은 교육과정 내용의 수평적 조직 원리이다. 범위는 교육과정에서 다루어 줄 내용의 폭과 깊이를 말하며, 범위에 대한 예시는 국가 교육과정 편제에 나타난 시간 배당표를 들 수 있다(박창언, 2017).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예술교

과는 1~3학년 간 17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형식적으로 보면 교육현장에서 무슨 내용을 얼마만큼의 깊이로 가르칠 것인지를 결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통합성은 교육과정의 내용의 지식과 경험을 서로 연결 짓는 것을 의미한다(소경희, 2017). 학습자가 사물을 통합적 관점에서 보게 하고 학습내용과 행동을 통합시키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정 내용의 조직 원리이다. 따라서 교과 내용과 경험 사이에서 오는 불균형과 부조화를 해소하고(허혜경, 정슬기, 2018), 단순히 교과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소경희, 2017).

계열성과 계속성은 교육과정 내용의 수직적 조직에 해당되는 것이다. 계열성은 교육과정 내용이나 학습경험이 배열되는 순서를 의미한다. 교육과정 내용이 동일한 수준에서 반복이 된다면, 지식이나 기능 및 가치는 제대로 발전하지 않는다(박창언, 2017). 계열성은 학년이 거듭될수록 교육과정 내용이 단계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져서 경험이 계속적으로 축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음악형식의 개념에 대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음악형식이 갖는 부수적 의미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도록 조직하는 것이다. 계열성은 반복이 아닌 교육과정 내용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깊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김대현, 2017).

계속성은 교육과정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학습의 누적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직하는 것이다. 계속성은 이미 배운 내용과 새로이 배울 내용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속성은 연속성, 반복성 등과 같은 용어로 사용이 되기도 한다(박창언, 2017). 개념의 활용이 반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능의 반복을 통한 반복성도 존재한다. 인간의 학습이 한 번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계속성은 교육과정의 조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연계성은 연관성이라고도 부르며, 교육과정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상호 관련성을 말하며, 수직적·수평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 수직적 연계성은 나중에 배울 내용과 이전에 배운 내용이 잘 연계되도록 조직하는 것이고, 수평적 연계성은 동일 학년 내 교과 간의 유사한 개념을 동일한 '수준'으로 연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내용 간 '연결'에 초점을 두는 통합과는 구분된다(소경희, 2017).

균형성은 특정한 교육과정 내용에 우세한 비중이 주어져 교육과정 내용에서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기초 교과 영역(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이수단위를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를 넘을 수 없도록 하여 교육과정 내용의 균형성을 유도한다.

3.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여태까지 존재했던 문·이과의 구분을 없애고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공통과목을 도입하고,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 관심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을 가능하도록 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개정 방향으로 하였다. 또한 교과별로 반드시 배워야 할 핵심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의 함양을 가능케 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습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1) 고등학교 주요 개정 사항

고등학교는 학습자가 공통과목을 통해 기초 소양을 함양하도록 한 후, 학습자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선택과목(일반선택과 진로선택)을 개설하도록 하였다(〈표 2〉 참조). 진로선택과목은 학생의 진로에 따른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세 개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표 2〉 2015 개정 교육과정 편제(교육부, 2015)

교과	2015 개정 교육과정		
	공통과목	선택과목	
보통 교과		일반선택	진로선택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갖추기 위한 과목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과목	교과 융합학습, 진로안내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실생활 체험학습 등을 위한 과목
전문 교과	전문교과 I		전문교과 II
	특수 목적 고등학교 대상 교과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대상 교과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고등학교 교과(군)별 이수단위는 〈표 3〉과 같다.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며, 필수 이수 단위의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로 공통 과목 단위 수를 포함한다(〈표 3〉 참조).

〈표 3〉 일반고등학교 이수단위(교육부, 2015)

교과영역	교과(군)	공통과목(단위)	필수이수단위	자율편성 단위
기 초	국 어	국 어 (8)	1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 학	수 학 (8)	10	
	영 어	영 어 (8)	10	
	한국사	한 국 사 (6)	6	
탐 구	사 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 (8)	10	
	과 학	통합과학 (8) 과학탐구실험 (2)	12	
체육·예술	체 육	-	10	
	예 술	-	10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 문 교 양	-	16	
소 계			94	86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2) 고등학교 체육·예술 교과영역 편제 과목

고등학교 체육·예술 영역은 체육과 예술 교과로 이루어져 있고, 공통과목은 없으며, 예술교과의 일반 선택과목에는 음악, 미술, 연극이 진로 선택과목에는 음악연주, 음악 감상과비평, 미술창작, 미술감상과비평이 있다(〈표 4〉 참조).

〈표 4〉 체육·예술 영역 보통 교과 (교육부, 2015)

교과 영역	교과 (군)	공통 과목	선택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체육· 예술	체육	-	체육, 운동과건강	스포츠생활, 체육탐구
	예술	-	음악, 미술, 연극	음악연주, 음악감상과비평 미술창작, 미술감상과비평

〈표 5〉 예술 계열 전문교과 I (교육부, 2015)

교과	구분	과목
예술 계열	음악	음악이론, 음악사, 시창·청음, 음악전공실기, 합창, 합주, 공연실습
	미술	미술이론, 미술사, 드로잉, 평면조형, 입체 조형, 매체 미술, 미술전공실기
	무용	무용의이해, 무용과목, 무용기초실기, 무용전공실기, 무용음악실습, 안무, 무용과 매체, 무용감상과비평
	문학	문예창작입문, 문학 개론, 문장론, 문학과매체, 고전문학감상, 현대문학감상, 시창작, 소설창작, 극창작
	연극	연극의이해, 연기, 무대기술, 연극제작실습, 연극감상과비평,
	영화	영화의이해, 영화기술, 시나리오, 영화제작실습, 영화감상과비평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는 총 320개교이며, 이 중 일반고등학교는 188개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23개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17개교, 특수목적고등학교는 21개교, 특성화고등학교는 70개교이다. 총 188개교의 일반고등학교 중 남녀공학은 81개교이고, 여학교는 56개교이며, 남학교는 51개교이다.

이 연구는 일반고등학교 학교교육과정 중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한 2018학년도 입학생의 3개년 예술교과의 교육과정편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학교알리미에 공시되어 있는 각 학교의 학교교육과정 편성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18학년도 입학생의 3개년 교육과정이 확정되지 않거나 공시되어 있지 않은 일반고등학교는 총 30개교로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일반고등학교로 분류되어 있지만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성격을 지닌 서울미술고등학교 또한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어, 최종으로 총 157개교의 일반고등학교가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 자료분석

서울특별시 일반고등학교의 학교교육과정은 학교지정 과목과 학생선택 과목으로 구분하여 편제되어 있다. 학교지정 과목이란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으로 모든 학생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며, 학생선택 과목이란 학생들이 개설 과목 중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이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각 학교의 예술교과 교육과정 편제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하였다.

첫째, 예술교과가 학년별로 어떻게 편제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각 일반고등학교의 예술교과 이수단위를 분석하였다.

셋째, 학교지정으로만 예술교과가 편제된 학교의 세부교과와 운영단위를 분석하였다.

넷째, 학교지정과 학생선택 모두로 예술교과가 편제된 학교의 세부교과 개설 현황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학생선택으로만 예술교과가 편제된 학교의 세부교과 개설 현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술교과를 음악, 미술, 문학, 연극, 영화, 사진교과로 구분하여 각 교과의 과목 개설 수를 분석하였다. 모든 자료는 Excel 2013에 입력하여 빈도분석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서울특별시 일반고등학교 예술교과 교육과정 편제 현황

서울특별시 일반고등학교의 학년별 예술교과 교육과정 편제 현황은 <표 6>과 같다. 예술교과가 학교지정 과목으로만 편제된 학교는 전체 157개교 중 49개교(31.2%)이며, 학교지정 과목과 학생선택 과목으로 모두 편제된 학교는 104개교(66.2%)이고, 학생선택으로만 편제된 학교는 4개교(2.5%)이다.

예술교과가 학교지정 과목으로만 편제된 학교의 학년별 예술교과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1, 2학년에만 개설된 학교는 총 31개교로 가장 많으며, 예술교과가 학교지정 과목으로만 편제된 전체 학교(n=49)의 63.3%를 차지한다. 1, 2, 3학년 모두에 개설된 학교는 10개교(20.4%)이고, 1, 3학년에만 개설된 학교는 4개교(8.2%)이며, 1학년에만 개설된 학교도 4개교(8.2%)나 있었다. 예술교과가 학교지정 과목과 학생선택 과목으로 모두 편제된 학교의 학년별 예술교과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1, 2학년에 학교지정 과목으로 3학년에 학생선택 과목으로 개설된 학교(n=22)와 1학년에 학교지정 과목으로 2학년에 학생선택 과목으로 개설된 학교(n=22)가 각각 21.2%로 가장 많았으며, 1학년에 학교지정 과목으로 2, 3학년에 학생선택 과목으로 개설된 학교(n=21)가 20.2%로 다음으로 많았다. 1, 2, 3학년 모든 학년에 학교지정 과목으로 일부 개설하고, 2, 3학년 또는 2학년이나 3학년에 학생선택 과목으로도 개설한 학교는 11개교(10.5%)이

며, 예술교과를 학교지정 과목과 학생선택 과목으로 1학년에만 개설한 학교도 1개교 있었다. 예술교과가 학생선택과목으로만 모두 편제된 학교의 학년별 예술교과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1, 2, 3학년 모든 학년에 개설된 학교는 총 4개교 중 2개교(50%)이고, 2, 3학년에만 개설된 학교도 총 4개교 중 2개교(50%)이다.

종합해보면, 전체 157개교 연구대상 학교 중 학교지정과 학생선택 구분 없이 1, 2, 3학년 모두에 예술교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78개교(49.6%)이고, 1, 2학년에만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53개교(33.7%)이며, 1, 3학년에만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19개교(12.1%)이다. 2, 3학년에만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2개교(1.2%)이며, 1학년에만 개설되어 있는 학교도 5개교(3.1%)나 된다.

〈표 6〉 서울특별시 일반고등학교 예술교과 교육과정 학년별 편제 현황

구분	학교지정			학생선택			학교 수	빈도 (%)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학교지정 편제	O	O	O	X	X	X	10	20.4
	O	O	X	X	X	X	31	63.3
	O	X	O	X	X	X	4	8.2
	O	X	X	X	X	X	4	8.2
	소 계						49	100
학교지정 + 학생선택 편제	O	O	O	X	O	O	2	1.9
	O	O	O	X	X	O	8	7.7
	O	O	O	X	O	X	1	1.0
	O	O	X	X	O	O	12	11.5
	O	O	X	X	X	O	22	21.2
	O	X	O	X	X	O	3	2.9
	O	X	X	X	O	O	21	20.2
	O	X	X	X	O	X	22	21.2
	O	X	X	X	X	O	12	11.5
	O	X	X	O	X	X	1	1.0
	소 계						104	100
학생선택 편제	X	X	X	O	O	O	2	50
	X	X	X	X	O	O	2	50
	소 계						4	100

2. 서울특별시 일반고등학교 예술교과 이수단위 편성 현황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일반고등학교 예술교과의 필수이수 단위는 10단위이며,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추가이수단위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표 7〉은 서울특별시 각 일반고등학교의 예술교과 이수단위를 분석하여 종합한 것이다. 예술교과가 학교지정 과목으로만 편제된 학교의 이수단위는 학교에서 지정한 것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필수이수단위인 10단위를 그대로 편성한 학교는 44개교(28%)이고, 추가이수단위를 더하여 12단위로 자율적으로 편성한 학교는 5개교(3.2%)이다.

예술교과가 학교지정 과목과 학생선택 과목으로 모두 편제된 학교의 이수단위는 학교에서 이수단위를 지정하여 편성하는 경우와 학생이 학교에서 지정한 이수단위에 추가로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경우로 나뉜다. 학교지정 과목과 학생선택 과목 모두 이수단위가 지정된 학교는 총 40개교로 전체 연구대상 학교의 25.5%이며, 이 중 10단위로 편성한 학교가 35개교로 가장 많고, 12단위로 편성한 학교도 4개교가 있었으며, 14단위로 편성한 학교도 1개교가 있었다. 예술교과가 학교지정 과목과 학생선택 과목으로 모두 편제된 학교 중 학교에서 지정한 이수단위에 추가로 학생이 예술과목을 선택하여 예술교과 이수단위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학교는 총 64개교로 전체 연구대상 학교의 40.7%이며, 학교지정과 학생선택 과목의 이수단위와 학생선택 과목의 최대 이수단위는 〈표 7〉과 같이 학교별로 다양하다. 이 중 최소이수단위를 10단위로 편성하고 추가적으로 이수단위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48개교(30.6%)로 가장 많았으며, 최소이수단위를 12단위와 14단위로 편성한 학교도 각각 8개교와 2개교가 있었다. 최소이수단위를 8단위(n=3)와 6단위(n=3)로 편성한 학교와 학생선택 최대이수단위가 54까지 가능한 학교도 있으나, 이는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학교교육과정 편성 자료에만 입각하여 분석한 것으로 실제 운영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술교과가 학생선택 과목으로만 편제된 학교의 이수단위 역시 학교에서 지정하여 편성하는 경우와 학교에서 지정한 이수단위에 추가로 학생이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경우로 나뉜다.

〈표 7〉 예술교과 이수단위 편성 현황

구분		이수단위			학교 수	전체	빈도 (%)
		최소	학교 지정	학생선택			
학교지정 편제		10	10	0	44	49	31.2
		12	12	0	5		
	이수단위 지정	10	8	2	18	40	25.5
			6	4	14		
			4	6	3		
		12	8	4	4		
		14	8	6	1		

구분		이수단위			학교 수	전체	빈도 (%)
		최소	학교 지정	학생선택			
학교지정 + 학생선택 편제	이수단위 자율	*10+	10	0~2	1	48	30.6
				0~4	3		
				0~6	4		
				0~8	4		
				0~2	4		
				0~8	2		
				0~24	3		
				0~36	1		
				0~40	2		
				0~44	1		
				0~54	1		
			8	**2+ 0~12	1		
				2+ 0~16	1		
				2+ 0~18	1		
				2+ 0~24	3		
		6	6	4+ 0~2	3		
				4+ 0~12	8		
				4+ 0~24	1		
				4+ 0~36	1		
		4	4	6+ 0~6	2		
				6+ 0~12	1		
		12+	12	0~4	1	8	5.1
				0~24	1		
				0~32	1		
				4+ 0~6	1		
		6	8	4+ 0~12	2		
				6+ 0~12	1		
		14+	10	4+ 0~8	1	2	1.3
				6+ 0~12	1		
		8+	8	0~6	1	3	1.9
				0~16	1		
				0~30	1		
		6+	6	0~8	1	3	1.9
				0~14	1		
				0~48	1		
학생선택 편제	이수단위 지정	10	0	10	1	1	.6
	이수단위 자율	10+	0	10+ 0~6	1	3	1.9
		12+	0	12+ 0~12	2		

* +는 이상을 의미한다.

** 2+는 학교에서 지정한 이수단위 2에 추가로 더해진다는 의미다.

3. 예술교과 과목 개설 현황

1) 학교지정으로만 예술교과를 편제한 학교

학교지정으로만 예술교과를 편제한 학교의 예술교과 과목과 운영단위는 <표 8>과 같다. 총 49개교 중 예술교과 필수이수단위인 10단위를 그대로 편성한 학교는 44개교이고, 초과하여 12단위로 편성한 학교는 5개교이다. 일반선택 과목인 음악과 미술만을 개설한 학교는 17개교로 전체 49개교 중 34.7%로 가장 많고, 운영단위는 음악 5와 미술 5, 음악 4와 미술 6, 음악 6과 미술 4의 세 가지로 편성되었다. 일반선택 과목인 음악, 미술과 진로선택 과목인 음악연주, 미술창작, 음악감상과비평, 미술감상과비평 중 2과목을 선택하여 편성한 학교는 18개교(36.7%)이고, 1과목을 선택하여 편성한 학교는 11개교(22.4%)이다. 일반선택 모든 과목(음악, 미술, 연극)으로 편성한 학교도 1개교(2%) 있었다.

<표 8> 예술교과가 학교지정으로만 편제된 학교의 예술교과 과목과 운영단위

필수 단위	이수단위		과목 유형	과목	운영단위			개설 학교 수	빈도 (%)
	학교 지정	학생 선택							
10	12	0	일반	음악	4			4	8.2
			일반	미술	4				
			진로	음악감상과 비평	2				
			진로	미술감상과 비평	2				
	12	0	일반	음악	4			1	2.0
			진로	미술창작	4				
			진로	음악감상과 비평	2				
			진로	미술감상과 비평	2				
	12	0	일반	음악	4			1	2.0
			일반	미술	4				
			진로	음악감상과비평	2				
			진로	미술창작	2				
	10	0	일반	음악	5	4	6	17	34.7
			일반	미술	5	6	4		
	10	0	일반	음악	3	4		6	12.2
			일반	미술	3	4			
			진로	음악감상과 비평	2	2			
			진로	미술창작	2	2			
	10	0	일반	음악	4	3	2	6	12.2
			일반	미술	4	3	2		

필수 단위	이수단위		과목 유형	과목	운영단위			개설 학교 수	빈도 (%)
	학교 지정	학생 선택							
			진로	음악감상과 비평	2	2	3		
			진로	미술감상과 비평	2	2	3		
	10	0	일반	음악	4			4	8.2
			일반	미술	4				
			진로	음악감상과 비평	2				
	10	0	일반	음악	3			4	8.2
			일반	미술	3				
			진로	음악연주	4				
	10	0	일반	음악	3			3	6.1
			일반	미술	3				
			진로	미술창작	4				
	10	0	일반	음악	3			1	2.0
			일반	미술	3				
			진로	음악연주	2				
			진로	미술창작	2				
	10	0	일반	미술	4			1	2.0
			진로	미술창작	2				
			진로	음악감상과 비평	2				
			진로	미술감상과 비평	2				
	10	0	일반	음악	3			1	2.0
			일반	미술	4				
			일반	연극	3				

2) 예술교과를 학교지정과 학생선택으로 편제한 학교

예술교과를 학교지정과 학생선택 과목으로 모두 편제한 학교의 개설과목을 분석하여 종합하면 <표 9>와 같다. 예술교과를 학교지정과 학생선택 모두에 편제한 학교 중 이수단위가 지정된 학교는 총 40개교로 이들 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살펴보면, 음악과 미술이 학교지정으로 95%(n=38), 92.5%(n=37) 학생선택으로 5%(n=2), 2.5%(n=1)로 거의 모든 학교에 개설되었고, 다음으로 음악감상과비평과 미술감상과비평이 학생선택으로 85%(n=34)와 75%(n=30)로 많이 개설되었다. 미술창작과 음악연주도 학교지정과 학생선택을 합산하여 27.5%(n=11)와 22.5%(n=6)로 개설되었으며, 전문교과 I인 미술사를 개설한 학교도 1개교(2.5%)있었다. 그러나 예술교과 일반선택과목인 연극을 개설한 학교는 한군데도 없었다.

예술교과를 학교지정과 학생선택 모두에 편제한 학교 중 이수단위가 자율인 학교는

총 64개교로 이들 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살펴보면, 학교지정 과목으로는 음악과 미술이 96.9%(n=62)와 93.8%(n=60)로 가장 많이 개설되었고, 학생선택 과목으로는 음악교과에서는 음악감상과비평과 음악연주가 59.4%(n=38)와 42.2%(n=27)로 미술교과에서는 미술창작과 미술감상과비평이 60.9%(n=39)와 42.2%(n=27)로 가장 많이 개설되었다. 학교지정 과목으로 전문교과 I의 과목이 개설된 경우는 현대문학감상이 개설된 1개교(1.6%)뿐이었다. 하지만, 학생선택 과목으로 전문교과 I의 과목들이 개설된 경우는 총 121개교*로 학생선택 과목으로 전문교과 I의 과목들을 많이 개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교과 I의 과목 중 가장 많이 개설된 과목은 음악전공실기(35.9%, n=23)와 미술전공실기(37.5%, n=24)이며, 문학교과 중에는 현대문학감상(12.5%, n=8)이 연극·영화 교과에는 연극의이해(4.7%, n=3)가 가장 많이 개설되었다. 전문교과 II 과목인 사진의이해를 학생선택 과목으로 개설한 학교도 1개교(1.6%)있었다.

〈표 9〉 학교지정과 학생선택 과목으로 예술교과가 편제된 학교의 개설과목 현황

구분		과목 유형	과목		개설 학교 수	빈도 (%)
이수 단위 지정 (40 개교)	학교 지정	일반	음악		38	95.0
		일반	미술		37	92.5
		진로	음악연주		3	7.5
	학생 선택	진로	음악감상과 비평		34	85.0
		진로	미술감상과 비평		30	75.0
		진로	미술창작		11	27.5
		진로	음악연주		6	15.0
		일반	음악		2	5.0
		일반	미술		1	2.5
		전문I	미술사		1	2.5
이수 단위 자유 (64 개교)	학교 지정	일반	음악		62	96.9
		일반	미술		60	93.8
		진로	음악감상과비평		11	17.2
		진로	미술창작		10	15.6
		진로	음악연주		5	7.8
		진로	미술감상과비평		3	4.7
		전문I	현대문학감상		1	1.6
	학생 선택	진로	음악감상과비평	음악	38	59.4
		진로	음악연주		27	42.2
		진로	음악전공실기		23	35.9
		진로	시창·청음		10	15.6
		전문I	음악사		7	10.9
		전문I	음악이론		7	10.9

* 중복합산 되었음.

구분	과목 유형	과목	개설 학교 수	빈도 (%)
	전문I	합창	5	7.8
	전문I	합주	5	7.8
	전문I	공연실습	1	1.6
	진로	미술창작	39	60.9
	진로	미술감상과비평	27	42.2
	전문I	미술전공실기	24	37.5
	전문I	드로잉	17	26.6
	전문I	평면조형	9	14.1
	전문I	입체조형	6	9.4
	전문I	매체미술	5	7.8
	전문I	미술사	4	6.3
	전문I	미술이론	4	6.3
	전문I	디자인 일반	1	1.6
	전문I	현대문학감상	8	12.5
	전문I	문학과매체	4	6.3
	전문I	고전문학감상	3	4.7
	전문I	문학개론	1	1.6
	전문I	문장론	1	1.6
	전문I	연극의이해	3	4.7
	일반	연극	2	3.1
	전문I	연기	1	1.6
	전문I	연극감상과비평	1	1.6
	전문I	연극제작실습	1	1.6
	전문I	영화감상과 비평	2	3.1
	전문I	영화제작실습	1	1.6
	전문II	사진의이해	1	1.6

3) 예술교과를 학생선택으로만 편제한 학교

예술교과를 학생선택 과목으로만 편제한 학교는 총 4개교이며 이들 학교에서 개설한 예술교과목과 운영단위는 <표 10>과 같다. 이수단위가 지정된 학교는 1개교로 예술교과 이수단위는 10단위이며, 일반선택교과인 음악, 미술, 연극이 각 4단위 운영단위로 개설되어 있고 이 중 2과목을 선택하여 8단위를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진로선택교과인 음악감상과비평, 미술감상과비평과 전문I 교과인 연극의이해는 각 2단위 운영단위로 개설되어 있으며, 이 중 1과목을 선택해서 2단위를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단위가 자율인 학교 중 일반선택 교과인 음악, 미술과 진로선택의 모든 과목이 개설되어있는 학교는 2개교이고, 이들의 운영단위에는 차이가 있다. 2개교 모두 음악과 미술은 운영단위 4단위로 이 중 1과목을 선택하여 4단위를 이수해야 하지만, 음악

연주와 미술창작은 운영단위 6단위와 8단위로 두 학교 간 차이가 있으며, 이 중 1과목을 선택하여 6단위 혹은 8단위로 이수해야 한다. 음악감상과비평과 미술감상과비평 또한 운영단위 6단위와 4단위로 운영단위에 차이가 있으며, 각 과목은 이수 단위 선택에 제한이 없으므로 학생은 자율적으로 추가 이수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수단위가 자율인 학교 중 1개교는 음악, 미술, 음악연주, 미술창작을 각각 운영단위 6단위로 개설하여 최소 12단위에서 최대 24단위까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표 10〉 학생선택으로만 예술교과가 편제된 학교의 예술교과 과목과 운영단위

구분	과목 유형	과목	운영단위				학교 수
이수 단위 지정	일반	음악	4		택 8		1
	일반	미술	4				
	일반	연극	4				
	진로	음악감상과비평	2		택 2		
	진로	미술감상과비평	2				
	전문I	연극의이해	2				
이수 단위 자율	일반	음악	4	택 4	4	택 4	2
	일반	미술	4		4		
	진로	음악연주	6	택 6	8	택 8	
	진로	미술창작	6		8		
	진로	음악감상과비평	6	0~12	4	0~8	
	진로	미술감상과비평	6		4		
	일반	음악	6		택 6~12		1
	일반	미술	6				
	진로	음악연주	6		택 6~12		
	진로	미술창작	6				

4. 예술교과 별 과목 개설 수

서울특별시 157개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예술교과 별 과목 개설 수는 〈표 11〉과 같다. 음악교과와 미술교과의 모든 과목 개설 수를 각각 합산하면 366개, 373개로 미술교과가 7개 더 많이 개설되어 있으나, 운영단위까지 합산한 수치가 아니므로 두 교과에 개설 현황에 대한 차이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개설 과목 수로 보자면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연극 교과는 연극이 일반선택과목에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지정 교과로는 1개만 개설되었고, 학생선택 교과로 13개가 개설되어있다. 문학, 영화, 사진은 전문I, 전문II 교과로 일반고등학교에서는 필요

에 따라 전문 교과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전문예술 교과 중 문학교과가 18개 (학교지정 1개, 학생선택 17개)로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교과 별 과목 개설 수

구분			교과	과목 개월 수	%
학교지정 편제			음악 교과	77	50.3
			미술 교과	74	48.4
			문학 교과	1	.7
			연극 교과	1	.7
			소 계	153	100
학교지정 + 학생선택 편제	이수 단위 지정	학교지정	음악 교과	41	52.6
			미술 교과	37	47.4
			소 계	78	100
		학생선택	음악 교과	42	49.4
			미술 교과	43	50.6
			소 계	85	100
	이수 단위 선택	학교지정	음악 교과	78	51.3
			미술 교과	73	48.0
			문학 교과	1	.7
			소 계	152	100
		학생선택	음악 교과	118	41.0
			미술 교과	136	47.2
			문학 교과	17	5.9
			연극 교과	13	4.5
			영화 교과	3	1.0
사진 교과			1	.3	
소 계			288	100	
학생선택 편제			음악 교과	10	47.6
			미술 교과	10	47.6
			연극 교과	1	4.8
			소 계	21	100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일반고등학교 중 2018학년도 입학생의 3개년 교육과정 편제를 공시한 157개교를 대상으로 예술교과 교육과정 편제를 분석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지정한 일반고등학교 예술교과 필수이수단위는 10단위이며, 각 학교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추가이수단위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예술교과에는 공통과목은 없으며 일반선택 과목에는 음악, 미술,

연극이 있으며 진로선택 과목에는 음악연주, 미술창작, 음악감상과비평, 미술감상과비평이 있다. 일반고등학교에서는 필요에 따라 전문 교과와 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음악교과와 미술교과 외 문학교과, 연극·영화 교과, 사진교과, 무용교과의 과목이 편성되어 운영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과정에 편성되는 예술교과의 과목, 운영단위와 학년별 편제, 그리고 총 이수단위는 각 학교마다 다양하고 그 차이 또한 크다. 이 연구에서는 이렇듯 다양한 예술교과 교육과정의 편성 현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157개 연구대상학교의 교육관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을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교과가 1, 2, 3학년 모든 학년에 편제되어 있는 경우는 전체 157개교 중 78개교(49.6%)이고, 1, 2학년에만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53개교(33.7%)이며, 1, 3학년에만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19개교(12.1%)이다. 1학년에만 개설되어 있는 학교도 5개교(3.1%)나 되며, 2, 3학년에만 개설된 학교는 2개교(1.2%)이다. 이는 전체 학교 중 49.6%에서만 전 학년에 걸쳐 예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51.4%에서는 한 학년이나 두 학년에서만 예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미술과 음악과 같이 독립된 교과가 예술교과로 합하여 편제되어 있어, 실제 음악교과나 미술교과는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시수의 절반도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 극단적으로 학생들이 음악교과나 미술교과를 3년 동안 한 학기도 학습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교육과정 내용은 범위, 계열성, 통합성, 계속성, 연계성, 균형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조직하여야 한다(박창언, 2017). 이 중 계속성은 수직적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교육과정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학습의 누적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직하는 것이다. 특히 예술교과와 같이 특정 기능을 계발하는데 중점을 둔 교과는 학습의 계속성이 필요하므로, 교육과정 내용을 조직할 때에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 1년 혹은 2년만으로 예술교과가 학습되는 되는 현 상황은 다소 염려스럽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을 가능하도록 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개정 방향으로 하였다. 하지만 전체 연구대상 157개교 중 49개교(31.2%)는 학교지정으로만 예술교과를 편제하였고, 학생선택이 가능한 108개 중에서도 이수단위를 지정한 학교가 41개교(26.1%)이다. 예술교과 이수단위를 학교에서 지정한 경우 예술교과를 추가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없으므로 예술교과에 대한 학생선택의 폭이 제한된다. 이에 반해 157개교

* 학생선택과목이 다양하게 편제되어 있으므로 몇몇 학교에서는 예술교과가 3년간 개설되어 있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실제 3년간 예술교과를 이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 기본이수단위를 초과하여 예술교과 이수단위를 자율로 편성할 수 있는 학교는 64개교(40.7%)로 예술교과에 대한 학생선택의 폭이 위의 두 경우보다 넓으며 예술교과에 개설된 과목에서 명백히 차이가 난다. 학교지정으로만 예술교과가 편제된 학교에서는 전문I 교과 과목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고 이수단위지정 학교에서도 전문I 교과는 1과목이 1개교에만 편성되었다. 반면, 이수단위자율 학교에서는 전문I 교과가 학교지정으로 1과목이 학생선택으로 24과목이나 편성되어 있으며, 전문II 교과 1과목 편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민용성 외(2011)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이 진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20%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 특히, 예체능 계열이 입시의 15%를 차지하지만, 일반고등학교에서는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원표, 2016). 예술교과 선택의 폭을 넓히고 예술계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몇몇 학교에서 시행하는 바와 같이 예술교과 이수단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보통교과 외 전문교과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선택 과목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연구대상 학교 전체 예술교과 과목 개설 수는 777개로 음악교과와 미술교과가 각각 366개(47.1%), 373개(48%)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학생선택 과목 중 전문I 교과로 문학교과 과목이 18개나 개설되어 있다. 문학교과도 예술교과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나, 국어교과가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예술교과에 문학교과를 포함시키는 것은 기존 예술교과의 축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연구대상을 서울특별시 소재 일반고등학교로 제한하였기에, 타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또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학교로 연구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는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자료만을 근거로 분석하였으므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편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첫 해년도인 2018년 입학생의 3개년 교육과정 편제를 분석한 것으로 2, 3학년 교육과정이 실제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 편제된 것이다. 실제 교육과정이 시행된 후 어떠한 점이 변화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 2015-80호[별책1]).
- 교육과정평가원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중·고등학교) 개발 연구** (연구보고 CRC 2015-28).
- 김대현 (2017). **교육과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민용성·백경선·한혜정·곽상훈·정치훈(201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방안**.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창언 (2017). **현대교육과정학**, 서울: 학지사.
- 김지혜 (2019).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반영된 음악 교과 역량 분석. **음악교육연구**, 48(1), 33-51.
- 소경희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이 남긴 과제: 각론 개발의 쟁점 탐색. **교육과정연구**, 33(1), 195-214.
- 소경희 (2017). **교육과정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허계경, 정슬기 (2018). **현대교육과정의 이해**. 경기: 문음사.
- 홍원표 (2016).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적용 방안과 후속 지원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교육과정연구**, 34(2), 69-94.
- Brady, L. (1995). School based curriculum development and the national curriculum: Can they coexist?, *Curriculum and Teaching*, 10(1), 47-54.
- Eisner, E. W. (1985). *The educational imagination: On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school programs*. NY: Macmillan.
- Tyler, R. W. (2013).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주)두산 (2018). **두산백과**. 접속일 11.27.2018. <http://www.doopedia.co.kr>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 **학교알리미**. 접속일 10.20.2018.<https://www.schoolinfo.go.kr>
-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접속일 11.29.2018.<http://encykorea.aks.ac.kr>

ABSTRACT

An Analysis of Arts Curriculum of High Schools in Seoul

Bae, Su-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rts curriculum of high schools in Seoul. Of 188 general high schools, 157 schools, which publically announced the three-year curriculum of 2018 class, were selected. The status of arts curriculum by grade, the number of units of arts curriculum by school, and the opening of arts subjects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re are 78 schools (49.6%) in which the arts curriculum is organized in the first, second, and third grades, and 79 (51.4%) are organized in only one grade or two grades. 49 out of 157 schools (31.2%) organized arts subjects designated by school. Among 108 schools where students are allowed to choose arts subjects, 41 schools (26.1%) fixed the arts credits that students can take. Therefore, of 157 schools, 90 schools have limitation for students in selecting the arts subjects.

Keywords: curriculum, arts curriculum, arts education

투고일: 2월 28일, 심사(수정): 4월 19일(4월 28일), 게재확정일: 5월 3일